

“사람과 AI가 함께 이웃 지킨다”

현수엽 제1차관, 고독사 예방 정책 현장 점검

- 대구광역시 고립 위기가구 발굴·지원하는 인적 안전망 활동 격려 -
- AI·ICT 활용 안부확인 서비스 대상 가정 방문 -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6월 11일(목) 오후 1시 대구광역시를 방문하여 지방정부의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고독사 예방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위기가구 대응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사회 인적 안전망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대구광역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즐거운 생활지원단*, 건강돌봄단 등 다양한 인적 안전망을 운영하고, AI케어콜**, 24시간 AI돌보미*** 등 AI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 60세 이상의 사회복지 관련 자격소지자 또는 업무 유경력자 선발, 대학위탁 직무교육 이수 후 활동

** AI 활용 안부 전화(월 2회) 및 대화내용 기반 이상 감지 시 전문상담원 대응

*** 위기가구에 AI 스피커 설치, 대화 등 정서지원과 24시간 ICT케어센터(심리상담사 배치)를 통한 돌봄·안부 확인

이날 현수엽 제1차관은 대구시청을 방문하여 대구시의 고독사 예방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서비스 대상 가정을 방문하였다.

해당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단독가구로 척추 협착과 무릎관절증을 앓고 있다. 이 가구에는 AI를 활용한 안부 전화(월 2회), 모바일 앱을 통한 이상징후 감지* 및 건강관리 정보 제공, 스마트워치로 낙상관리, 심박수 체크 등의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 24시간 동안 4가지 반응(폰 지참 걸기, 전화·문자 등 통신사용, 앱 사용, 폰 충전)이 없는 경우 대상자에 연락 시도, 현장 출동

아울러 ‘즐거운 생활지원단’이라는 대구시 자체 인적 안전망이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 신청 정보를 제공하거나 후원 물품 지원도 하고 있다.

현수업 제1차관은 즐거운 생활지원단의 활동 모습과 대상자 지원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즐거운 생활지원단원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며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현수업 제1차관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을 돕는 민간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라며, “한 사람의 안타까운 생명도 놓치지 않도록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사회 모두 함께 협력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가길 바란다” 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현장방문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서일환 (044-202-3120)
		담당자	사무관	조미라 (044-202-3132)



□ **개요**

- (일시) '26.6.11.(목) 13:00~14:00
- (장소) 대구시청 → 대상자 가정
- (참석)
 - (복지부) 제1차관, 지역복지과장
 - (지자체)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대구 서구청 복지정책과장 등
 - (유관기관) 대구시니어클럽협회 회장, 대구생명의전화 상담소장 등
- (주요내용) 지방정부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 현황,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인적 안전망 활동 및 AI·ICT 활용 위험군 관리 체계 운영 현황 점검

□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13:00~13:03	3'	▶ 참석자 소개
13:00~13:05	2'	▶ 인사말
13:05~13:25	20'	▶ 대구시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 현황 설명 및 현장 의견 청취 - 고독·고립 위험군 발굴, 안부 확인 등 사업 추진 현황
13:25~13:40	15'	▶ 이동(시청 → 대상자 가정)
13:40~14:00	20'	▶ 인적 안전망, AI·ICT 활용한 위험군 관리 체계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14:00		▶ 마무리